

V. 다리오 첫 두 해와 바빌로니아인들의 반란¹⁾

A. 520 B.C. - 성전 건축과 사마리아인의 반대

에스라 4:11-16에서 유대인의 적들은 유대인의 건축계획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왕에게 썼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오프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와잉 수치 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에 대한 요청은 우리가 그 당시의 정치적 풍토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가지 흥미로운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분명히 아닥사스다 원년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은 왕의 생각을 그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그런 것들에 향하게 하고 있었다. 바빌론은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과 함께 광범위한 영토를 차지했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요새화된 예루살렘이 또 다른 잃어버린 나라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사마리아인들이 “당신 나라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등과 같이 말한 것 또한 궁금하다. 유대인들이 아닥사스다의 나라에서 올라왔다면,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것이다. 사마리아인들의 전략은 성공했고, 유대인들의 일은 다리오/ 아닥사스다 2년차까지 중지되었다.

선지자 학개가 예언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520년 8월 22일, 그는 유대인들에게 건축하기를 권장했고, 기원전 520년 9월 14일, 그들은 다시 그들의 일로 돌아왔다. 다리오는 군사활동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전략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다리오에게 편지를 썼지만, 유대인들은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에 의해 만들어진 원래 칙령에 호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1) 유진 폴스티히, [포로기 및 회복기와 역사의 조화], 성경과학연구소 2020, 6장 pp137-141 참고

그들의 일을 계속 할 권리를 허락했다. 이 호소는 아하수에로라고 불린 가짜-스메르디스에게 왕위를 빼앗겼을 때는 아무 수용이 없었을 것이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에스라 5:8-16

수색은 바빌론의 기록 보관소에서 처음 이뤄졌다. 이것은 그 자체로 주의를 다른 데로 전환하기 위한 전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채, 수색은 미디어의 액바타나의 기록에서 발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조서의 장소는 고레스 원년에 유대인들이 미디어에 있었다는 개념을 뒷받침해준다. 바빌로니아에서 성전의 식기들을 얻은 것은 나보니두스 6년에 아스티아게스와 고레스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관리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해준다. 다리오가 조서를 발견하였을 때, 그는 매우 화가 났다. 느헤미야는 이미 시종으로 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대인에 대한 고레스의 칙령은 고레스 실린더의 단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리오의 조서는 매우 확고하였고 아마 제 3년(기원전 519년)의 여름까지는 유대에 닿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

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 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에스라 6:6-12

B. 예레미야 70년 예언의 끝

1. 왕이 죽다

페르시아인 다리오에 의한 바빌론 심판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의 결말에 대한 '징후들'을 충족시켰다. 다리오는 바빌로니아 왕을 죽였다. 이와 더불어 바빌론의 성벽과 성문을 부수고 바빌로니아 족장 삼천 명을 포로로 잡았다. 헤로도투스는 다음과 같이 도시의 파괴를 기록하고 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굴복시킨 다리오는 그들의 성벽을 부수고 그들의 성문을 모두 탈취하였다. 고레스가 바빌론을 처음 점령할 때에 한 일이지 전혀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삼천여 명을 찢었고, 나머지는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의 성읍을 되돌려 주었다." *헤로도투스* III.159.

다리오가 바빌론의 왕을 죽인 것은 베히스툰 비문과 헤로도투스가 기술한 바빌론의 파괴에 쓰인 대로 예레미야의 70주 예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레미야 25:12-14

2. 그 땅은 축복 받을 것이다

다리오 왕 제 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이십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십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르를 길으려 이른즉 이십 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갸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십사일 곧 여호와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 2:10, 15-19

같은 날 기슬루 월 24일, 학개는 주로부터 두 번째 예언(학개 2:20)을 받았는데, 이 예언은 새롭고 독립적이며 권위있는(일종의 메시아) 지도자로서 다윗 혈통을 계승하는 왕자 스룹바벨에게 전달되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학개 2:21-23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이 학개 2:10-19와 같은 날짜이고, 학개 2:6-7을 반복하고 있으며, '메시아'로서 고위 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기술한 스가랴 6:11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비판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은 단 하루만에 예언의 메시지를 한 개 이상 줄 수 없거나 둘 이상의 예언자에 의해 사용된 구절(이사야 13:13, 요엘 3:16, ~~히브리~~ 히브리 12:26)을 가정한다. 여호수아의 re-clothing 또는 대관식은 그리스도에서 스룹바벨에게 부여된 왕권과 결합될 메시아의 사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별개의 사건이다.¹⁾

위의 학개 2:10-19의 날짜에 대해 그토록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 70년 예언에 대한 종지부라는 점이다. 출발점은 이미 에스겔 24:1-2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레고리력에서는 에스겔의 날짜인 기원전 590년 12월 21일이 정확히 학개의 날짜인 기원전 520년 12월 11일로부터 70년이다(기원전 590년 + 70 = 기원전 520년, 히브리식 추정). 이 두 날짜 사이의 시간은 25,556일이다. 이 수를 태양년 한 해의 일 수로 나눈 것은 69

태양년(365.25일)과 354일(태음월 12개월)을 더한 것과 같다. 에스겔의 날짜는 그의 아내의 죽음으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에스겔의 날짜와 학개의 날짜 사이도 히브리 선지자들은 침묵을 지켰다.

다리오의 답신서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전과 도시를 계속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날짜는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끝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에스라 6:1-5에 따르면, 원래 고레스의 조서는 메데스 지방의 엑바타나*Ecbatana*(악메타*Achmetha* ;킹제임스 성경)의 궁전에 위치하였다. 엑바타나는 페르시아 왕들에 의해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던, 쾌적한 곳에 위치한 요새였다. 다리오의 원본을 읽고 나서 고레스의 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하는 쪽을 택했다. 고레스의 칙령은 역대기하 36:22-23 과 에스라 1:1-4와는 다소 다르다. 그것은 성전의 치수 등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다.²⁾

3. 희년

스가랴 1:12은 70년이 끝났다고 이야기 한다. 그 기간은 학개가 '기억하라'고 들었던(학개 2:10, 15, 18) 날에 끝났고, 에스겔이 '기록하라'고 들은(에스겔 24:1-2) 그 날부터 시작되었다. 역대기하 36:21에 따르면 70년이라는 기간은 안식년으로 시작하여 안식년으로 끝나야 한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시고, 그가 기쁘게 하실 때에 그 땅을 받으시거나 주시는 분이시니 그것은 희년에 끝나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희년에 돌아와야 한다(레위기 25:23). 그 건설은 다리오(아닥사스다) 제 이년인 기원전 520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 유도되었고, 두 개의 메모가 페르시아에 보내지는 동안 그 해의 균형을 위해 중지되었다. 희년인 기원전 519년 추수의 시기에 이르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약속하셨다.

다리오의 조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신의 영향력의 결과였다.

4. 예언자가 말했다

70년의 후반부까지는 예언적인 발언이 없어야 했다(예레미야 27:14, 29:8-9). 히브리의 선지자 학개는 다리오 제 2년 엘룰 월 1일에서 기슬루 월 24일까지 4개월의 기간 동안 예언했다. 스가라는 다리오 제 2년 (기원전 520년) 여덟 번째

달(마르헤스반 월)에 예언을 시작했다.

이는 바빌론에서 1차 포로 무리가 귀환한지 30년 후의 일이었다(기원전 549년). 도해 XVIII는 주로 다리오 제 2년(히브리식 추정) 또는 다리오 원년(페르시아식 추정)에 나타나는 학개와 스가라의 연대기의 조감도를 제공한다.

히브리식 추정	사건	참고문헌	그레고리력 기원전 날짜
다리오 왕 제 2년			
엘룰 월 1일	준비되지 않은 시간	학개 1:1	기원전 520년 8월 22일 월요일
엘룰 월 24일	성전 건설을 시작하다	학개 1:15	기원전 520년 9월 14일 수요일
티슈리 월 21일	국가의 보물이 오다	학개 2:1	
마르헤스반 월	스가라의 첫 번째 메시지	스가라 1:1	
마르헤스반 월 22일	바빌론 쇠퇴	베히스톤 비문	
기슬루 월 24일	기록해야 할 중요한 날짜	학개 2:10, 15, 18	기원전 520년 12월 11일 일요일
기슬루 월 24일	스룹바벨을 위한 예언	학개 2:20	기원전 520년 12월 11일 일요일
스밋 월 24일	스가라의 환영	스가라 1:7	희년 기원전 519년 2월 8일 수요일
기슬루 월 (9)4일	이스라엘이 듣기를 거부하다	스가라 7:1	기원전 518년 11월 29일 목요일

베히스톤 비문에 따르면 다리오 1세 치하 두 번째 반란이 일어나는 동안 바빌론이 쇠퇴한 바로 그 시기에 스가라가 그의 임기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인용문은 베히스톤비문으로부터 발췌된 것으로 헤로도투스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계속해라! 나를 위해 선언하지 않는 이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라' Vindafarna는 그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로 진군했다. 아후라마스다는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아후라마스다의 뜻에 따라 Vindafarna는 바빌로니아와 싸워 포로들을 잡아들였다. 그가 Arakha와 그의 주된 추종자들인 귀족들을 잡았을 때는 Margazana 월 22일이 지났다. 그래서 나는 명령을 내렸다. '아라카와 그의 추종자들인 귀족들은, 바빌론에서 책형에 처해질 것이다!'³⁾

베히스톤 비문은 Margazana월(히브리의 마르헤스반 월) 동안 아라카의 포위와 바빌론 유수에 대한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 때, 같은 달에 스가라는 그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예레미야 25:12- 13에 따르면 분명히 이것은 70년이 11에서 끝났다는 신호 였다. (비교, 스가라 1:12).

C. 개요

다리오의 통치 초기 2년 동안의 역사는 그 역시 아닥사스다로 불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 의해 예견되었던 70년 포로기의 종지부를 증명한다. 바빌론은 파괴되었고, 왕은 죽임을 당한 것 또한 예레미야와 일치한다. 연대기는 고레스가 아들 캄비세스가 수명이 다한 시기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언자들은 30년간의 좌절 끝에 백성들이 본분에 복귀하도록 격려했다. 요컨대, 30년 전 있었던 고레스의 칙령과 일부 포로들의 귀환에도 불구하고 70년의 끝, 그리고 다시 유대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다리오 2년에 일어났다.

-
- 1) 스톱바벨의 통치는 메시아의 선상에 있던 다른 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였다, 스톱바벨은 여호수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학개 1:1, 12 2:4). 두 사람 모두 히브리 메시아의 한 유형이었다(비교, 스가랴 3:8, 학개 2:21-23).
 - 2) 베히스툰 비문에 대한 이 인용문은 조르주 루, *고대 이라크*(하몬스위스, 미들섹스, 영국: 펭귄북스 Ltd, 1977), p. 371.
 - 3) 예레미야 25:12-13은 70년 예언이 끝나기 전에 몇 가지 필요조건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1) 바빌론 왕의 형벌, 2) 그 나라의 형벌, 3) 칼데아인들의 땅의 형벌, 그리고 4) 모든 것이 영원한 폐허가 되는 것.